[AI Economist] DOL · CLAIMS · 노동

미국 주간 실업수당청구: 신규청구 예상 소폭 하회, 계속청구는 부합하며 해고 신호 부재

2026.10.16 ·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한 줄 요약

신규청구 19.9 만 건으로 예상 20 만 건을 소폭 하회했고 계속청구 171 만 건은 예상에 부합했다 — 해고 경로와 재취업 경로 모두 균열 신호가 없어 연준의 추가 인상 논거를 흔들 재료는 아니다.

신규청구는 전주 수정치 19.8 만 건 대비 1,000 건 늘어난 19.9 만 건으로, 예상치 20 만 건보다 1,000 건 적었다. 계속청구는 171.4 만 건 수정치에서 4,000 건 줄어든 171 만 건으로 예상에 부합했다. 두 지표 모두 예상과의 격차가 미미해 이번 발표가 금리 경로를 다시 가격에 반영하게 할 만한 정보량은 사실상 없다고 판단한다.

내용을 뜯어보면 레벨은 여전히 견조하고 모멘텀은 횡보다. 신규청구는 20 만 건을 밑도는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4 주 이동평균은 19 만 8,500 건으로 전주 수정치보다 250 건 올랐다. 이 상승은 계절적으로 예상된 증가폭(11.0%)보다 실제 증가폭(11.4%)이 소폭 컸던 데서 나온 것으로, 별도의 악화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 재취업 쪽을 보면 계속청구와 4 주 이동평균이 모두 줄었고 보험가입 실업률도 1.1%로 전년 같은 시기보다 낮아, 일자리를 잃은 뒤 다시 구직급여 대상에서 벗어나는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다만 일리노이 등 일부 지역에서 건설·도매·소매·제조업 해고가 보고된 점은 금리에 민감한 업종의 국지적 냉각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전국 단위로는 계절 요인을 넘어서는 뚜렷한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종합하면 이번 지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다는 기존 판단을 흔들 근거가 되지 못하는 동시에, 최근 제기된 성장 둔화 우려에 대해서는 해고 사이클이 본격화된 흔적이 없다는 점에서 완충재 역할을 한다. 다음 주 전체 프로그램 계속청구와 10 월 10 일 신규청구 잠정치의 수정 방향이 이 판단의 지속 여부를 가를 변수다.

과거와 비교 (같은 분류 최근 분석)

발행일	핵심 메시지
2026-10-15 (이번)	10 월 9 일로 끝난 주간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19 만 9 천 건으로 시장 예상 20 만 건을 1 천 건 밑돌았고, 연속 실업수당 청구는 171 만 건으로 예상에 부합했다. 해고도 늘지 않고 재취업 지체도 심해지지 않는 구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노동시장이 식고 있다는 근거가 나오지 않아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논거를 흔들 재료는 없었다.
2026-10-08	이번 주간 신규실업급여청구 발표는 해고 경로에서 노동시장이 식고 있다는 신호를 전혀 내놓지 않았고, 따라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명분을 흔들 재료가 없는 발표였다.
2026-10-01	9 월 마지막 주 미국 실업수당 청구 지표는 해고와 재취업 두 측면이 함께 역사적 저위로 더 내려가면서,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 카드를 접을 만한 노동시장 냉각 신호가 이번에도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2026-09-24	9 월 셋째 주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지표는 해고와 재취업 두 축이 나란히 견조한 모습을 이어가며,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 카드를 접을 이유를 만들어주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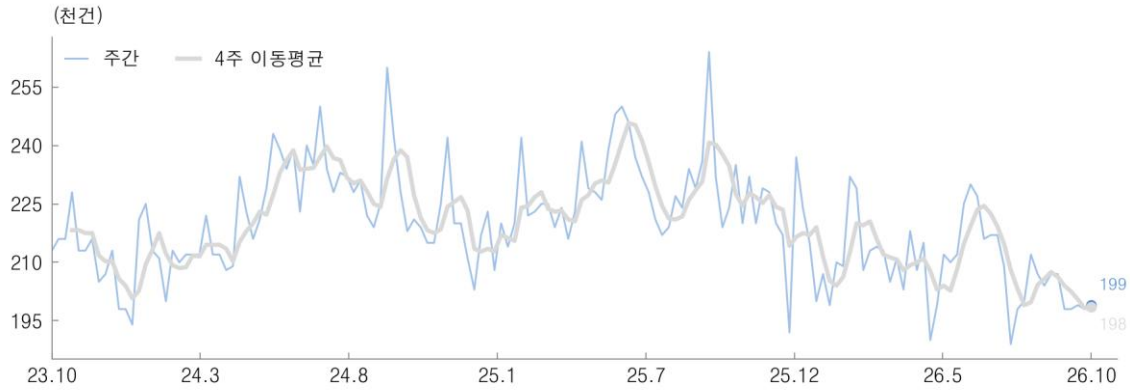
미국 주간 실업수당청구 핵심 지표 (10 월 11 일 주간 발표)

지표	이번	이전	변화	맥락
신규청구(계절조정, 10/10 주)	19 만 9 천 건	19 만 8 천 건(수정)	+1,000 건	1 년 전 22 만 2 천 건보다 낮음, 저위 횡보
신규청구 4 주 평균(계절조정)	19 만 8,500 건	19 만 8,250 건(수정)	+250 건	하락세 멈추고 저위 횡보, 1 년 전 22 만 4,750 건
계속청구(계절조정, 10/3 주)	171 만 건	171 만 4 천 건(수정)	-4,000 건	1 년 전 192 만 8 천 건보다 낮음
계속청구 4 주 평균(계절조정)	170 만 8,750 건	171 만 500 건(수정)	-1,750 건	재취업 적체 완화 신호
보험가입 실업률(계절조정)	1.1%	1.1%	변화 없음	1 년 전 1.3%보다 낮음
신규청구(비조정, 10/10 주)	19 만 626 건	17 만 1,170 건	+1 만 9,456 건(11.4%)	계절적 기대 증가율 11.0%보다 소폭 큼
보험가입 실업자(비조정, 10/3 주)	146 만 9,083 건	150 만 2,896 건	-3 만 3,813 건(-2.2%)	계절적 기대 감소율 -2.1%보다 더 크게 감소
전체 프로그램 합계 연속청구(비조정, 9/26 주)	152 만 5,589 건	152 만 77 건	+5,512 건	1 년 전 171 만 6,298 건보다 낮음

핵심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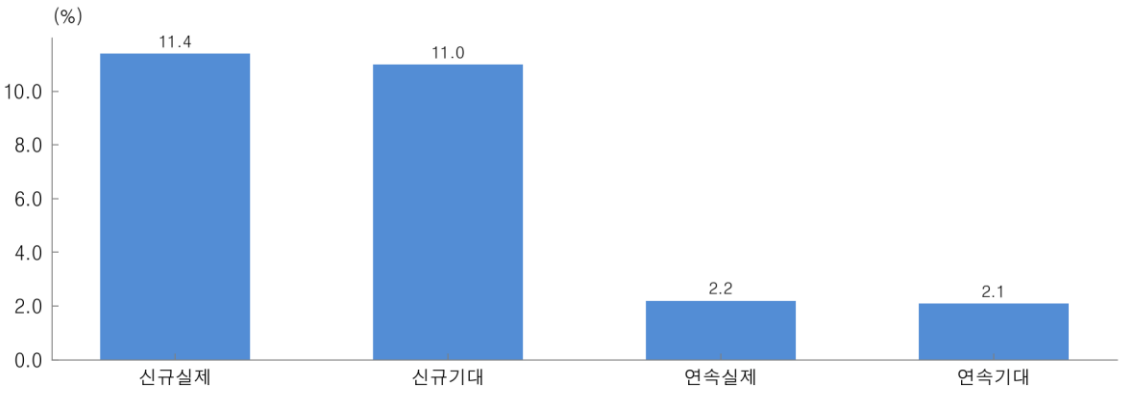
지표	값
4 주 이동평균(건)	198500
전주대비(건)	1000
계속 실업청구(건)	1710000
신규 실업청구(건)	19900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주간) 3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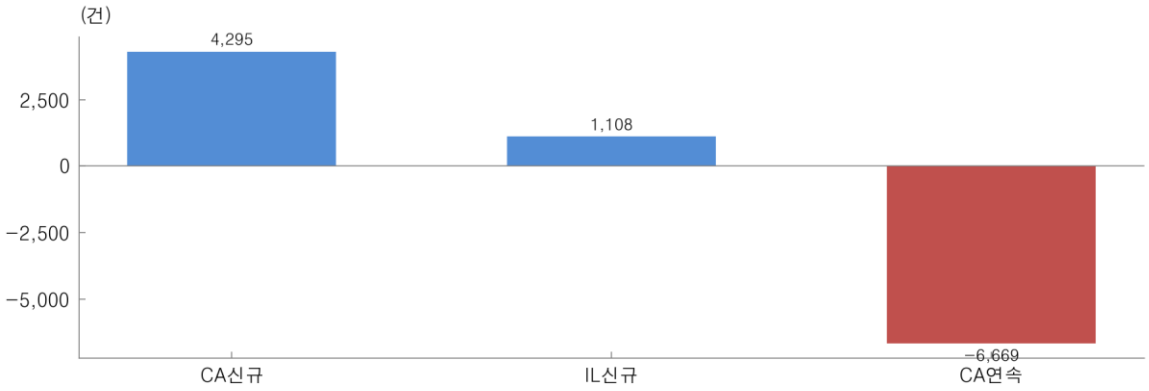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신규·연속청구 실제 증감률 vs 계절적 기대치(10/9·9/26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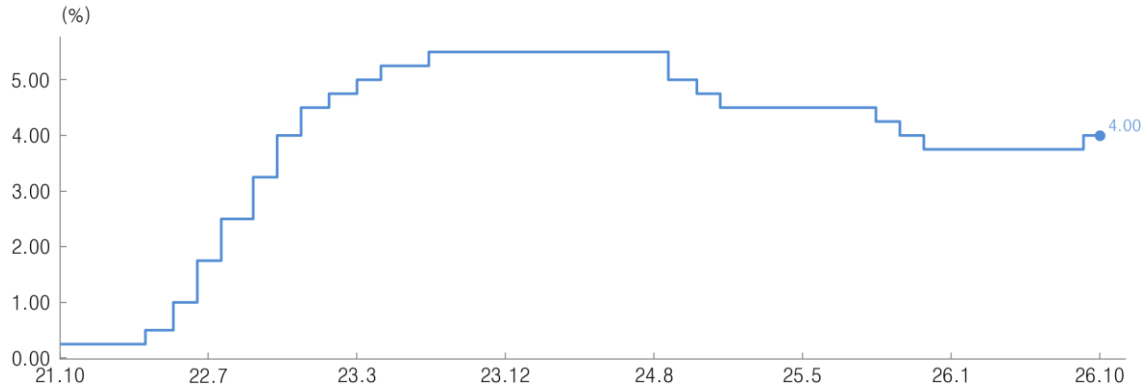
자료: 발표기관 보도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주요 주별 신규·연속청구 변동(건, 최신 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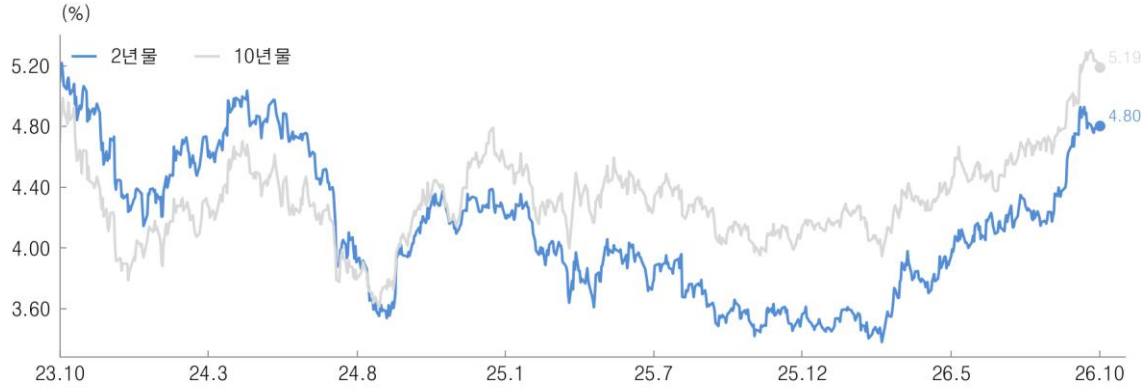
자료: 발표기관 보도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정책금리(연방기금 목표 상단) 5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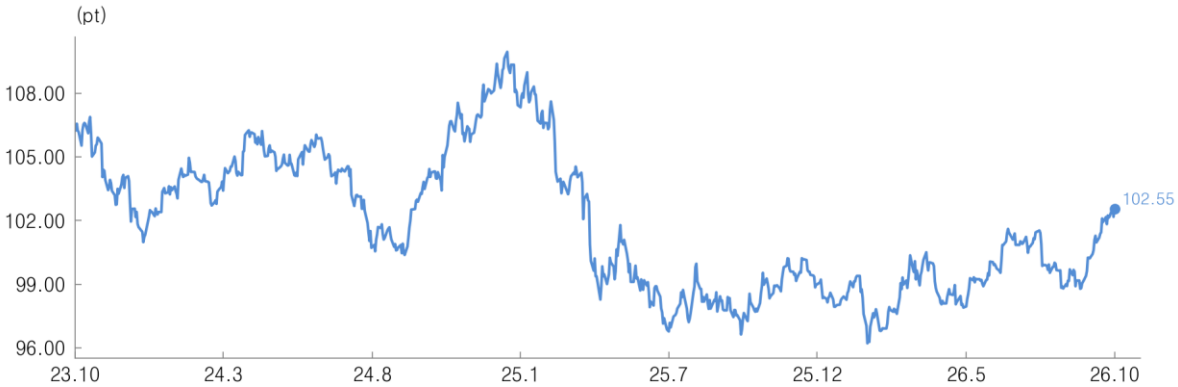
자료: CEIC(2026-10-15 기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국채금리 (2 년·10 년) 3 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달러지수(DXY) 3 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